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故최진실 49재와 종교의 신뢰성

11월 19일 양수리 김산공원에서 열린 故 최진실 씨의 49재를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개신교 신자였던 고인이 왜 불교의 49재를 지냈는가 하는 의문, 그것도 '기독교식 49재'를 지냈다는 보도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다음카페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진실 성도의 교회는 49재를 지내지 않습니다'라는 해명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회 측은 이 글에서 "최진실 성도의 유가족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이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티즌과 팬들이 나서서 49재를 한다고 해도 교회는 관여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기독교식 49재" 논란과 관련 "제사를 대신해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유가족을 위로하는 위례예배"라고 설명했다.

종교의식의 진정성에 대한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한 개신교 단체의 설문조사결과를 종교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

뒤편에도, 이 설문조사 결과는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주요 요단 가운데 바닥 수준임을 나타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관한 '2008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8.4%에 불과한 반면, '불신한다'는 비중은 48.3%로 높았다. 다른 종교와 비교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가톨릭 35.5%, 불교 31.1%로 답변한 데 비해 개신교는 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종교별 호감도에선 불교가 31.5%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 29.8%, 개신교 20.6% 등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기독교에 호감을 나타낸 응답자의 80%가 기독교인인 데 반해, 불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비불자들이었다. 종교 호감도 1위, 신뢰도 2위라는 상대 분석만을 놓고 볼 때 불교 포교의 전망은 장밋빛으로 보인다.

이 설문조사 문항중 '교회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바뀌어야 할 것'으로 '교인들의 연행일치'가 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타종교에 대한 관용'(25.8%), '사회봉사'(11.9%), '재정 사용의 투명성'(11.5%), '교회 성장주의 지양'(4.5%) 등 순으로 조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행일치와 사회봉사, 재정 사용의 투명화 등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 전법도 가능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으로 움츠러든 공직자 불자회가 지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1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불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날 장적 스님은 "종단과 불자회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화합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부부처 불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문화체육관광부불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불자회 관계자를 만나 친목에 빠졌던 불자들이 처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템플스테이나 법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실은 지방정부 불자회와 중앙정부 불자회를 연계해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불자회(회장 강운구)도 11월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제 3차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신행

올해의 포교대상 능가 스님

포교원, 수상자 17명 12월 2일 시상식

2008 조계종 포교대상(종정상) 수상자로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은 11월 18일 제20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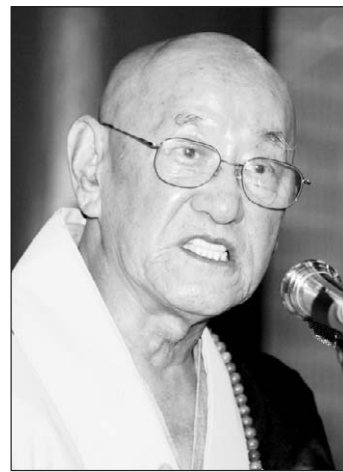
포교원은 포교대상에 능가 스님을, 공로상(총무원장상)에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안성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명예단장 등 4명을 선정했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진오 스님(사회포교, 대둔사 주지), 범능 스님(사회포교, 면목동 방과후공부방), 도제 스님(계종포교, 원각사 주지), 보림 스님(사회포교, 보문선원주지), 지상 스님(계종포교, 신홍사 포교국장), 김상래 군승법사(계종포교, 군중특별교구), 조당호(사회포교, 평택노인복지관장), 이인자(사회포교, 여성

개발원 고문, 김주환(매체포교, 동편 운영위원), 김영미(계종포교, 전국산악인연합회 이사), 이영채(계종포교, 부산 파라미터협회 임원), 전완중(계종포교, 해인사수련동문회장) 등 12명이 선정됐다.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능가 스님은 195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 주지, 세계불교대회 회장 등 한국불교 세계화에 중심 역할을 했다. 특히 30여 년 전부터 삼보불교재단을 설립해 불우이웃돕기 등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법보시운동을 전개, 매년 6만부 이상의 불교성전을 호필과 군보당 등 각계각층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포교원장 혜충 스님은 "이번 상은 포교에 더욱 정진해달라는 격려차원에서 공로상 2명을 비롯 총 5명의 대



상자를 늘렸다"며 "그럼에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입후보해 선정에 고충이 많았다. 상을 받으시는 분들과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모두 포교활동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제20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찰 산불 피해 막는데 최선 다할 터”

산림청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예방

하영제 산림청장이 11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제2의 낙산사 사태 예방을 다짐했다. 하 청장은 "4월 화순 운주사 산불에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가 증명됐다"며 "2008년을 산불로 인한 산중사찰 피해를 막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낙산사 복원 등 산림청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집을 짓는 것은 10여 년이면 족하나 나무를 키우는 데는 100년도 부족하다.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은 필요하나 발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답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 19일 포살법회 봉행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허운)는 11월 19일 동화사 대불전에서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을 포살법사로 동안기 대중결계를 겸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강주 지운 스님 등 350여 명이 동참했다.

손철현 대구지사장

공직자 불자회 기지개 켜다

조계종, 정부부처 불자회 간담회 열고 활성화 지원

이명박 정부 들어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으로 움츠러든 공직자 불자회가 지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1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 불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날 장적 스님은 "종단과 불자회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화합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부부처 불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문화체육관광부불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불자회 관계자를 만나 친목에 빠졌던 불자들이 처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템플스테이나 법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실은 지방정부 불자회와 중앙정부 불자회를 연계해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불자회(회장 강운구)도 11월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제 3차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신행

활성화를 다짐했다. 행사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위원)을 법사로 청와대 불자 46명과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 김진해 공불련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도문 스님은 법문에서 "3·1 독립운동 당시 불교와 천도교, 개신교, 장로회 및 감리회가 화합해 국군운동에 나섰다"며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문(聞), 사(思), 수(修)의 삼혜(三慧)로써 수행해 열반에 이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강운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회를 계기로 청불회가 더욱 발전하고, 소원했던 불교계와 정부 관계가 원만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70여 회원이 활동 중인 청불회는 매월 한차례씩 정기법회는 물론, 매분기마다 산사순례 등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는 11월 15일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내 독거노인 주거개선환경 봉사하는 등

'제5회 재경지역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의미있게 보냈다.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족부, 국가정보원, 국제청, 관세청, 경기제2청사, 서울 성북구청, 은평구청 등 8개 단위 불자회 20여 명 회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바라뵈기를 실천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공불련은 오는 12월 13~14일 사무국 22명 임원 수련회를 개최해 내년 사업계획과 발전방향 등 공불련 활성화를 집중토론할 계획이다.

원로 불자 정치인 모임인 정각동우회(회장 권익현)도 11월 19일 관문사 대불보전에서 '사찰순례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다졌다. 관문사(주지 정산) 부전 석용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총무부장 무원 스님, 정각동우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법문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 온 여러분들의 불교 신행 활동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불교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 이선연 기자

국제포교사 28명 새로 탄생

조계종 포교원 제3기 국제포교사 품수식 봉행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충)은 11월 16일 제13기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번 품수식에서 자격을 받은 국제포교사는 총 28명으로 필기고사와 1차 인성·습의 2차

원어인 영어구술평가와 다면평가 등 면접고사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인정받았다.

포교원은 그동안 283명의 국제포교사(비구 12명, 비구니 26명, 우바새 96명, 우바이 121명)를 배출해 불교지연 확대와 세계화에 기여해왔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사업단

'최고 디자인부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1월 13~16일 경기도 안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단체 가운데 최고 디자인 부스로 선정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모두 30개국, 302기관과 업체, 944개 부스가 참여했다.

이번 부스의 구성은 체험프로그램과 불교문화상품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고 운영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형 리플렛과 전국 877개 운영사찰의 브로슈어 등을 비치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청자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홍보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동환(前 KBS 중앙TV팀감독, 강원대 영상학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buddhanews.com

인턴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http://ad.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온라인서적 예시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8각10층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와 343일 조상천도제의 원만성취를 위한

조계사 28분 원로대덕큰스님 초청 법화산림법회 봉행

- 28분의 법화산림법회 초청법사 큰스님과 법회일정 -

조계사에서 법륜상전과 국운융창,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8각10층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와 343일 조상천도제의 원만성취를 위해 총무원장큰스님을 비롯한 28분의 원로대덕큰스님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한분씩 모시고 법화경 28품을 1품씩 설법하는 법화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시 | 2008년 11월 28일(음 11.1) ~ 2009년 6월 5일(음 5.13) 매주 금요일 10시

※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와 343일 천도제에 동참하신 분은 누구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사금: 탑내부에 원불 부처님을 봉안해 드리는데 1인 100,000원입니다.

문의전화: 조계사 중무소 02)732-2115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11월 28일 (음 11.1)	1. 서품	총무원장큰스님	3월 6일 (음 2.10)	15. 중지용수품	월파큰스님
12월 5일 (음 11.8)	2. 방편품	무진장큰스님	3월 13일 (음 2.17)	16. 여래수량품	도영큰스님
12월 12일 (음 11.15)	3. 비유품	월운큰스님	3월 20일 (음 2.24)	17. 분별공덕품	해인큰스님
12월 19일 (음 11.22)	4. 신해품	정무큰스님	3월 27일 (음 3.1)	18. 수희공덕품	총무원장큰스님
12월 26일 (음 11.29)	5. 약초유품	무비큰스님	4월 3일 (음 3.8)	19. 법사공덕품	성우큰스님
1월 2일 (음 12.7)	6. 수기품	법산큰스님	4월 10일 (음 3.15)	20. 상불경보살품	근일큰스님
1월 9일 (음 12.14)	7. 화성유품	해남큰스님	4월 17일 (음 3.22)	21. 여래신력품	밀운큰스님
1월 16일 (음 12.21)	8. 오백제자수기품	원학큰스님	4월 24일 (음 3.29)	22. 속루품	해창큰스님
1월 23일 (음 12.28)	9. 수학무학인기품	무관큰스님	5월 1일 (음 4.7)	23. 약왕보살본사품	현해큰스님
1월 30일 (음 1.5)	10. 범사품	홍교큰스님	5월 8일 (음 4.14)	24. 묘음보살품	침하큰스님
2월 6일 (음 1.12)	11. 견보담품	도문큰스님	5월 15일 (음 4.21)	25. 관세음보살보문품	세민큰스님
2월 13일 (음 1.19)	12. 제비달리품	인환큰스님	5월 22일 (음 4.28)	26. 다리니품	웅산큰스님
2월 20일 (음 1.26)	13. 권자품	지하큰스님	5월 29일 (음 5.6)	27. 묘장엄왕본사품	해충큰스님
2월 27일 (음 2.3)	14. 인략행품	증진큰스님	6월 5일 (음 5.13)	28. 보현보살권발품	총무원장큰스님